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2019년 9월 10일



안녕! 우리말

한글날 기념 행사 <출발, 새말모임>
어려운 외래 용어, 새말모임에서 함께 다듬어요

국립국어원은 국어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의 시선에서 좀 더 세련되고 수용도가 높은 우리말을 찾고,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올 9월부터 '새말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30대 젊은 세대 위주의 홍보·출판 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 아나운서, 현직 교사, 대학(원)생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말모임'은, 새로 유입되는 외래 용어가 자리를 잡기 전에 발 빠르게 새말을 마련하고 널리 퍼뜨리기 위하여 모든 회의를 누리소통망[SNS]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외래어들을 아름다운 우리말로 다듬어 주세요. 전문가 심사와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수상자로 선정되시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또한 '심표, 마침표.' 독자 중 으뜸상을 받으신 분은 새말모임의 위원으로 모시어 그 재능을 계속 뽐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다듬을 말

1) 에이에스엠아르(ASMR,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청각, 시각, 촉각 등을 이용하여 뇌를 자극해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것. 또는 그런 방법.

(예: O모씨는 거의 매일 밤 자기 전에 에이에스엠알 영상을 찾는다. ... “하루를 끝내고 누워방 안에서 불을 끄고 에이에스엠알을 듣다 보면 몸이 노곤해지고 위로받는 기분이 든다.”라고 말했다.)

2) 옐로(YOLO, you only live once):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 방식.

(예: '옐로족'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현재적인 욕구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계획적인 소비보다는 그때그때의 욕구와 관련된 소비 활동을 더 선호한다.)

3)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유행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가 바로바로 반영되어 빨리 바뀌는 패션.

(예: 게다가 요즘 소비자들은 트렌드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 역시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응모 기간

2019년 9월 10일(화)부터 26일(목) 자정까지

·응모 방법

- 아래 <응모하러 가기>에서 응모 양식에 따라 다듬은 말을 제안
- 응모 기간 중 총 3회 응모 가능하며 1회 응모 시, 각 외래어마다 다듬은 말은 1개씩만 제안 가능
- 3회를 초과하여 응모한 경우, 응모 및 용어 선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일한 다듬은 말을 제안한 경우, 해당 용어 제안자 중 1명을 추첨하여 수상자로 선정

·상품

1등
으뜸상



문화상품권 40만원 1명

*새말모임 위원 위촉 (본인 승낙 시)

2등
배금상



문화상품권 20만원 2명

3등
일침상



문화상품권 7만원 6명

응모하러 가기 ▶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 > 궁금한 우리말 > 우리말, 그리고 사람

최대환 기자는 풍더분한 인상과 부드럽고 명쾌한 말솜씨로 한국정책방송원의 간판 진행자로 활약 중이다. 카메라 뒤에서 그는 국어책임관으로 일하며 우리말 파수꾼 역할을 맡고 있다.



방송국의 우리말 지키기

최대한 기자는 한국정책방송원[KTV 국민방송]의 강연 프로그램 <생각의 탄생 20분>과 정부 정책을 쉽게 해설해 주는 유튜브 생방송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진행한다. 그리고 2015년부터 한국정책방송원의 국어책임관으로도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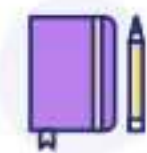
한국정책방송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된 국영 방송국이다. 정부와 국민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요 정책과 국정 현안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 정부의 영상 기록물을 보존하며, 공공기관의 영상물 제작을 지원하는 일도 맡고 있다.



국어책임관은 자신이 속한 기관의 구성원들이 쉽고 바른 우리말을 쓰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을 맡는다.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자치단체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어책임관으로서 그가 하는 일은 다양하다. 정부의 국어 정책을 한국방송정책원에 반영하고 전파하는 일이 주요 업무다. 표준어 규정이 바뀌면 방송국의 감독, 작가, 기자 등 임직원들에게 알려 어법에 맞는 말을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을 정하는 개편 시기에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제목이나 자막에 불필요한 외래어, 품위 없는 유행어 등을 남발하는 프로그램에는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쓰라고 권유한다.

“제가 국어책임관으로서 하는 일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치죠. 하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방송 분야는 대중을 상대로 하다 보니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인지 유행하는 비속어나 외래어를 별 고민 없이 쓰는 경우가 왕왕 있죠. 누군가는 그런 것을 감시하고 단속해야 하는데, 국어책임관 제도가 있어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이런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으면 아마 온 방송 프로그램이 1년도 안 돼서 외래어투성으로 변할지도 몰라요.”



어려운 공공 언어는 그만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일하다 보니 그는 정부 법령, 공문서, 보도 자료 등을 거의 매일 접한다. 그중 이해하기 어렵거나 잘못된 표현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한다.

“한번은 한 법령자료에서 ‘요부조자’라는 단어를 봤어요. 너무 낯설고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법무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글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요부조자(要扶助者)’라고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법령은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쉬운 말을 놔두고 국민들은 잘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를 꼭 써야 하느냐고 마구 따졌지요.”



▲ 강연 프로그램 <생각의 탄생 20분> 방송 화면

그의 거센 항의가 영향을 미쳤을까. 2017년 법제처에서 발표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8판’의 정비 대상 용어에 ‘요부조자’가 포함됐다. 2006년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 있던 이 어렵고 생소한 표현은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요즘 공공기관의 문서를 보면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용어가 많이 사라졌고, 되도록 쉽게 쓰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어책임관 제도 덕분인 것 같아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어문화원이 주최하는 국어책임관 국어교육 연수회에 참석하는데, 이 자리에서 ‘공공언어 쉽고 바르게 쓰기’를 주제로 다루면서 함께 고심합니다. 국어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개선 방향을 고민한 만큼 조금씩이나마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그는 공문서뿐 아니라 공공 안내문도 이해하기 쉬운 말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가끔 공공기관에서 ‘촉수엄금’ 같은 안내 문구를 봅니다. ‘손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같은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을 외면하고, 왜 고압적이고 어려운 표현을 쓰는지 아쉬워요. 대중이 보는 안내문은 더더욱 알기 쉬워야 합니다. 그래야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읽는 사람에게 친절한 느낌도 주지 않을까요?”



폭넓은 우리말 지식의 원천, 국립국어원 누리집



▲ 정부 정책 풀이 유튜브 방송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 화면

“한국인을 더 한국인답게 만들어 주는 것, 즉 우리를 더 우리답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우리말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 국민 모두가 바른 언어 사용에 관심을 갖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소중히 보존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방송을 하는 진행자이자 국어책임관으로서 저도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

최대환 기자는 인터뷰 내내 단소리보다는 쓴소리를 쏟아 냈다. 그런데 희한하게 뒷맛이 좋다. 모두 우리말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과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약이 되는 말이었기 때문이리라.

최대환 기자의 까칠한 지적은 모두 우리말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새로운 국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그의 오랜 취미이자 습관이다. 그는 특히 가나다전화와 온라인가나다를 자주 이용한다. 방송 준비를 하거나 글을 쓸 때 헛갈리는 표현이 있으면 즉시 가나다전화의 번호를 누른다. 후배 기자들에게 국립국어원의 누리집만 살펴봐도 유용한 국어 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 있다고 조언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이토록 우리말에 대한 사랑이 깊은 그에게 우리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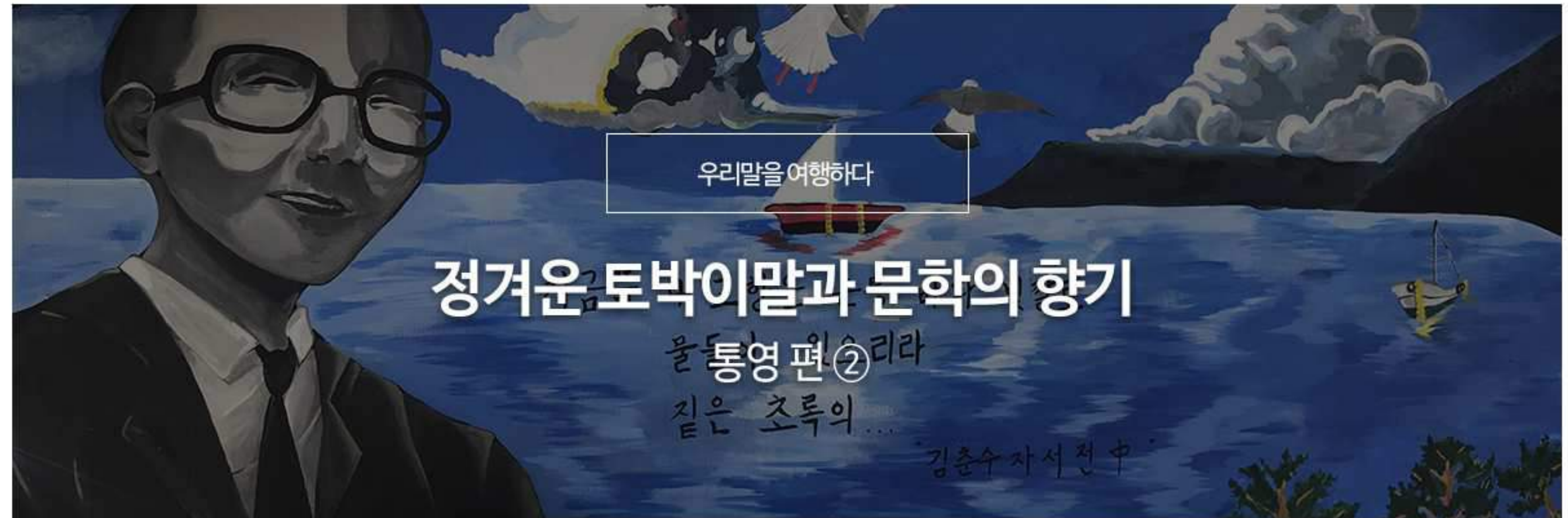
글: 정성민

사진: 김영길, 한국정책방송원

놀라운 우리말

우리말을 여행하다

찰나의 우리말



🏠 ▶ 놀라운 우리말 ▶ 우리말을 여행하다

통영 여행의 이튿날이 밝았다. 전날의 여운을 간직한 채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우리말의 발자취를 따라 부지런히 통영을 누볐다.



충렬사 계단에서 부르는 연가

서피랑 마을이 있는 명정동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위패를 모신 충렬사도 있다.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어 한번에 둘러보기 좋다. 이번 여행에서 충렬사에 들른 것은 충무공보다는 시인 백석의 흔적을 더듬어 보고 싶어서다. 충렬사 맞은편 길가에는 백석의 「통영2」 시비가 세워져 있다. 통영 출신이 아닌 시인의 시비로는 이것이 처음이다.

백석은 바로 이곳 충렬사 계단에 앉아 통영을 노래하는 시를 썼다. 더 정확히는 통영 출신인 그의 첫사랑을 그리워하며 쓴 시다. 백석이 친구의 결혼식에서 만난 18세 통영 아가씨 박경련에게 반해 몇 번이고 통영을 왔다가 만나지 못하자 닳을을 하고 충렬사 계단에 앉아 썼던 시가 「통영2」이다.

통영을 표현한 글귀 중 그 유명한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다.’라는 구절이 등장하는 작품이다. 이토록 통영이란 고장과 꼭 맞는 표현이라니! 지금 읽어 봐도 멋들어진 글귀다.



구마산의 선창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울며 나리는
배에 올라서 오는 물길이 반날
갓 나는 고당은 갓갓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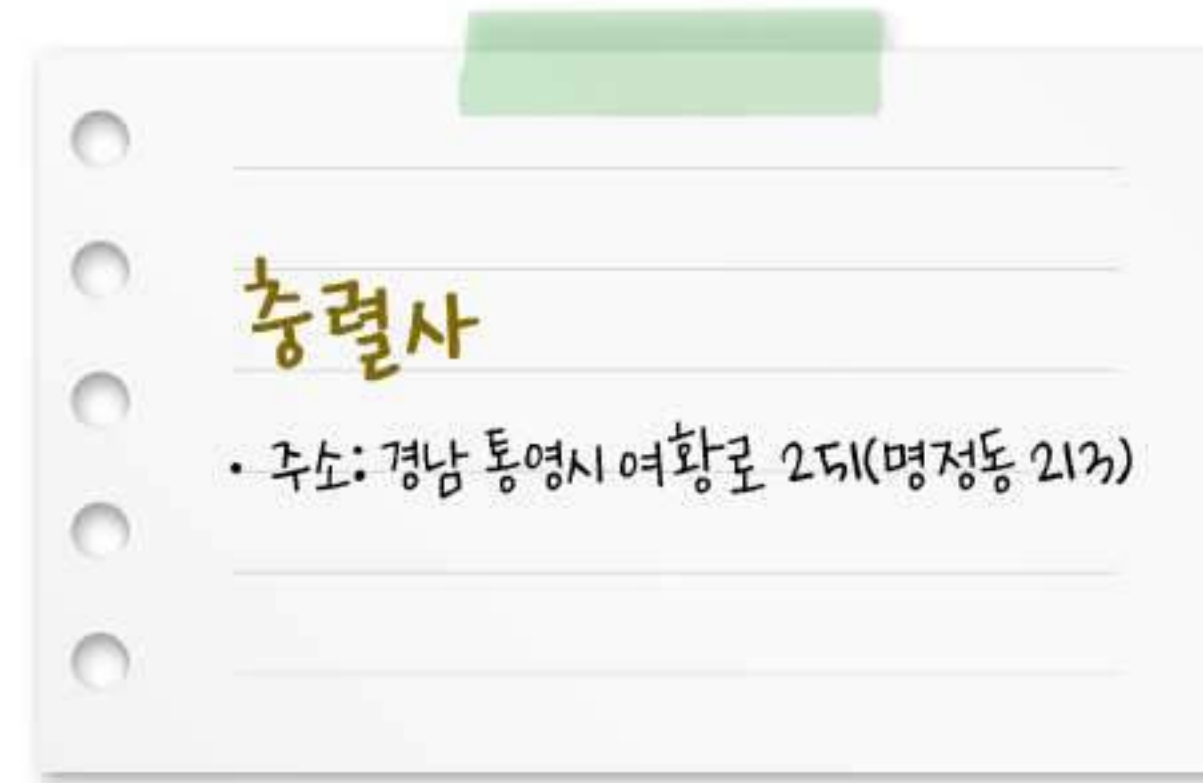
바람맛도 짹짹한 물맛도 짹짹한

전복에 해삼에 도미 가재미의 생선이 좋고
파래에 가개미에 호루기의 젓갈이 좋고

새벽녘의 거리엔 쿵쿵 북이 울고
밤새껏 바다에선 뽕뽕 배가 울고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다.
(하략)

-백석, 「통영2」



꽃의 시인 김춘수를 만나다

시인 김춘수도 통영에서 태어났다. 중앙시장 근처에 그가 태어난 집이 남아 있다. 여행자와 토박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기분 좋은 소란스러움을 자아내는 동네다. 그의 생가는 좁다란 골목 안쪽에 있다. 지금은 이곳 주민이 살고 있는데, 통영시에서 김춘수의 업적을 기념하고자 담벼락에 벽화를 그려 넣었다. 교과서에서 익히 봤던 시 「꽃」, 「꽃을 위한 서시」 등이 수놓아져 있다. 시험 문제로 풀 때는 별 감흥이 없더니만, 그가 살던 고향 집 앞에서 가만히 시구를 바라보고 있자니, 고운 우리말이 가슴 속에 더 와닿는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락)

-김춘수, 「꽃」



김춘수생가

• 주소: 경남 통영시 통영항해안로 373-2
(동호동 60)



‘기림을 온 베르뵉에 기리노이 불끼 새빈’ 동피랑



중앙시장 바로 옆 동네, 태평동으로 가면 동피랑 벽화 마을이 있다. 강구안 언덕길에 있는 동피랑은 마을 곳곳이 벽화로 장식되어 있어 볼거리가 많다. 주말이면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통영의 관광 명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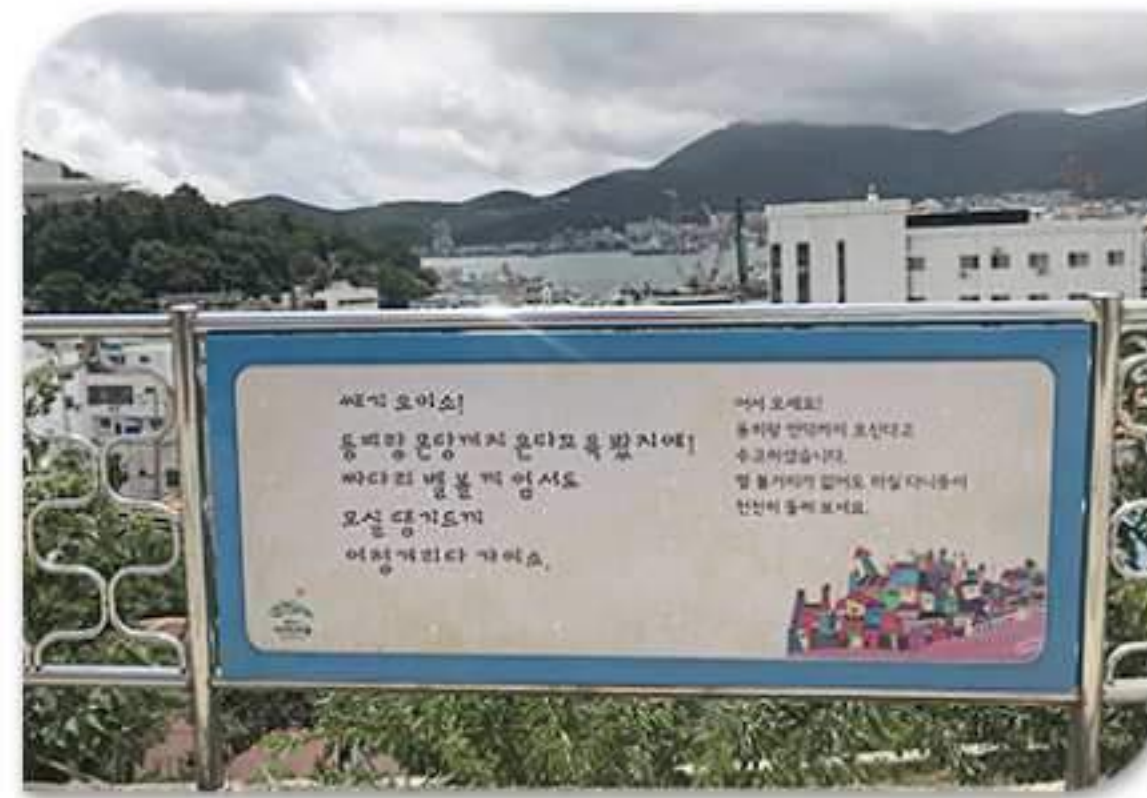
동피랑 마을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뜻밖에 통영 전통 연(鳶) 벽화다. 마을 입구 담장에 수십 가지 전통 연이 그려져 있다.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이 직접 만들어 섬과 섬, 섬과 육지 사이의 통신과 전술 신호 수단으로 사용한 연을 그려 놓은 것이다.

각각의 그림 아래 ‘윗까치당가리연’, ‘아래까치당가리연’, ‘기바리 눈쟁이연’, ‘청치마머리 눈쟁이연’ 등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모두 연의 생김새와 썩 잘 어울린다. 하나씩 소리 내서 읽어보니 생소하긴 해도 어감이 재미있다.

동피랑 마을의 꼭대기에 다다르면 저 멀리 강구안이 내려다보인다. 오밀조밀하고 아담한 포구 마을을 바라보며 잠시 맘을 식히기에 좋다. 강구안에는 고깃배가 수시로 들락거리고 항구 바로 앞에는 북적이는 시장이 있다. 통영의 정취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강구안은 여행자들이 꼭 들르는 곳이고, 동피랑은 그런 강구안을 가장 잘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강구안을 눈에 담고 몸을 돌려 아래쪽으로 난 길로 걷다 보면 통영 토박이말로 쓰인표지판들이 나타난다. 통영 사투리가 생소한 이방인을 피식 웃음 짓게 만든다. 눈으로만 훑어보지 말고 소리 내서 따라 읽어 보길 권한다. 강세가 강한 경상남도의 말맛을 살려 읽으면 더 재미있다. 해학미가 넘치는 통영 토박이말의 매력에 빠져들 것이다. 즐겁게 따라 읽다 보니, 이 지역만의 정서가 살아 숨 쉬는 토박이말이 오랫동안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로 든다. 통영에 와서 걸출한 작가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문장을 찾아보는 즐거움도 컸지만, 우연히 마주친 통영 토박이말은 우리말의 생생함을 재발견하게 해 줬다.



동피랑 벽화마을

· 주소: 경남 통영시 동피랑길 6-18
(태평동 118-1)



통영 우리말 여행을 기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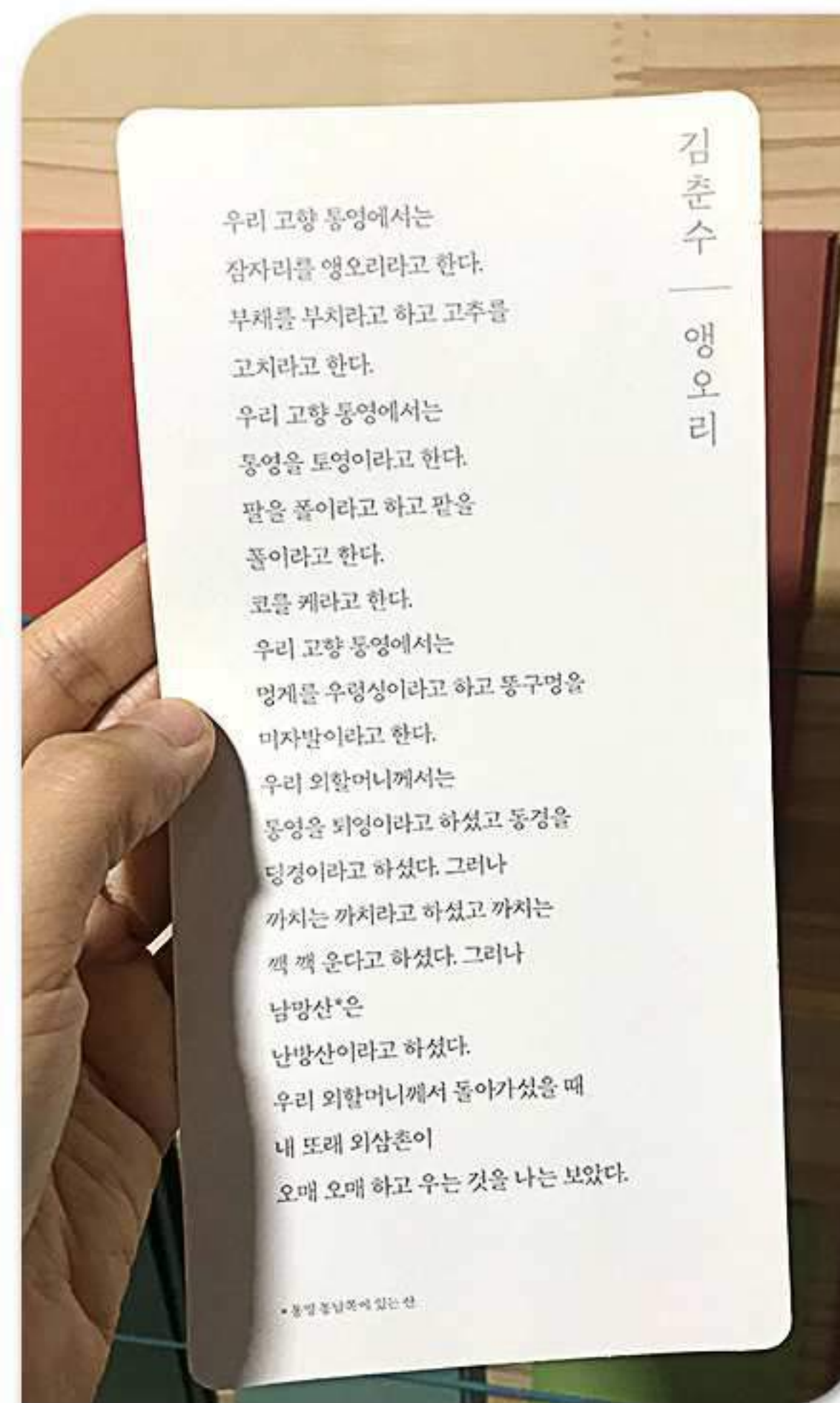
여행의 마침표는 자그마한 동네 책방이다. 복닥거리는 서울이 싫어, 멀리 통영으로 이사 온 부부가 운영하는 '봄날의 책방'이 마지막 목적지다. 봉평동 전혁림미술관과 이웃해 있는 이 책방은 동화책에서 막 튀어나온 듯하다. 주택을 개조한 서점 벽면에는 박경리, 김춘수, 백석, 윤이상 등 통영과 인연이 깊은 예술가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통영 출신 작가들의 책을 따로 모아 놓은 공간도 있다. 필자는 통영 여행을 기념하며 '시 카드' 한 장을 샀다. 밀봉된 봉투 안에 시 한 편이 담겨 있는 일종의 문학 상품이다. 박경리, 김춘수, 백석, 김소월, 윤동주, 이상, 김상옥 등의 시가 무작위로 들어 있다. 어떤 시가 들어 있는지 모른 채 사는 것인데, 뜻밖에 기분 좋은 기대감이 일었다.



봄날의 책방

- 주소: 경남 통영시 봉수길 6-1(봉평동 188-23)
- 전화: 070-7795-0531
- 영업: 일~월(오후 1시 30분~오후 6시)
수~토(오전 10시 30분~오후 6시 30분)

통영 나들목을 빠져나오며 살며시 봉투를 열었다. 고향 통영의 토박이말을 소개한 김춘수의 시 「앵오리」가 나를 따라왔다. 통영으로 떠나온 우리말 여행을 기념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다.



쉬어가는 우리말

방언한끼

우리말의 재구성



한가위 보름달처럼

어 여 뽐 우리 방언



맛있는 음식과
가족들의 웃음이 넘치는
풍요로운 추석이네요.
추석과 관련된 방언 한 끼,
함께 하실까요?



01 추석 음식을 준비하러 시장에 갑니다.



부풀다

✓ '붐비다'의 전라 방언

“시장이 북작북작 붐비는데 얼른 집에 가세.”

02 가족들이 함께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요.



바우다

✓ '집안의 대소사, 손님 대접 등을 위해 특별히 정성을 들여
꾸밈하게 음식을 장만하다'라는 뜻의 강원 방언

“추석에 쓸 음식은 다 정성을 들여 꾸밈하게 장만했니?”

03 보름달에 소원을 비는 것도 잊지 마세요.



✓ '보름달'의 제주 방언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고 하더라.”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2019년 9월 24일



국립국어원에 학교가 있다고요?
국어문화학교 제386기 국어전문교육과정

🏠 ▶ 궁금한 우리말 ▶ 안녕! 우리말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국어문화학교가 2019년 9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386기 국어전문교육과정'을 진행했다. 1992년에 개설된 국어문화학교는 공무원·교사·일반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하여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과정에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청, 경기도청 등 지방 자치 단체에 소속된 공무원 116명이 참가했다.



어문 규범의 이해부터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연습까지

수강생들은 5일 동안 서울 방화동에 있는 국립국어원에 매일 출석하며 배움에 깊은 열의를 보였다. 총 17개의 과목으로 구성된 해당 과정은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국어 교육과 우리말에 대한 배경지식을 넓힐 수 있는 국어 교양 교육으로 꾸며졌다. 어문 규범(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등), 직무 역량(공공언어, 보도자료, 말 다듬기 등), 문화·교양(수어, 훈민정음, 기타 특강 등)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이루어진 덕에, 수강생들이 실제로 자신의 국어 사용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 호응이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는 후문이다.



전 국민에게 활짝 열려 있는 우리말 배움터

국립국어원 원내 국어문화학교 수강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1년에는 약 1,300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약 2,100여 명에 이르렀다. 2001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원내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에 참가한 누적 수강생 수는 약 43,100여 명에 달한다. 국어를 향한 국민들의 관심과 학습 욕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은 ‘국어전문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국어문화학교에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3일의 단기 과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등이 신청하면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컴퓨터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모두 무료다.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선도하는 국립국어원이 신뢰하는 전문 강사진의 강의를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맞춰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여타 국어 강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장점으로 꼽힌다.



▲수강생 박문수 경기도청 언론협력담당관

“저는 평소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더 쉽고 정확한 표현을 쓰고 싶은 갈증이 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련 국어 교육을 찾아보던 중에 국어문화학교를 알게 되었어요. 수업을 듣고 보니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든 강의들이 흥미로웠지만, 특히 한글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해 준 ‘훈민정음의 이해’와 공공언어의 개념부터 실제 공문서 작성법까지 자세히 알려 주는 ‘공공언어의 이해’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함께 일하는 경기도청 동료들에게도 공유해 주고 싶은 내용이 많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사 한은주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선임연구원

“국어문화학교 수업의 가장 큰 매력은 수강생의 특성에 맞춰 실용적인 교육을 한다는 점입니다. ‘원내 국어문화학교’는 주로 공무원들의 참여가 많아서, 이들의 특성에 맞게 바른 공공언어 표현법을 익힐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하나라도 더 배워 가려고 질문하는 수강생들이 많아서 수업할 때마다 무척 뿌듯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의를 할 때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말글의 어문규범, 올바른 발음 등을 주로 알려 드립니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 단체도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국어문화학교를 활용해 주세요.”

원내 국어문화학교 수강 안내

1. 2019년 하반기 교육 일정

10월 공문서 특별과정: 10. 16.~10. 17.(2일)

10월 공문서 특별과정: 10. 30.~10. 31.(2일)

11월 공문서 특별과정: 11. 6.~11. 7.(2일)

12월 공문서 특별과정: 12. 3.~12. 3.(1일)

12월 공문서 특별과정: 12. 5.~12. 5.(1일)

387기 국어전문교육과정: 10. 21.~10. 25.(5일)

388기 국어전문교육과정: 11. 18.~11. 22.(5일)

389기 국어전문교육과정: 11. 25.~11. 29.(5일)

2. 수강 신청

- 공무원 및 기관 소속 관계자: 소속기관 교육담당자가 국립국어원 교육 수강신청 안내 문서에 따라 전자 공문으로 신청
(공문 수신처: 국립국어원 교육연수과)

- 일반 국민: [‘국어문화학교 누리집’](#)에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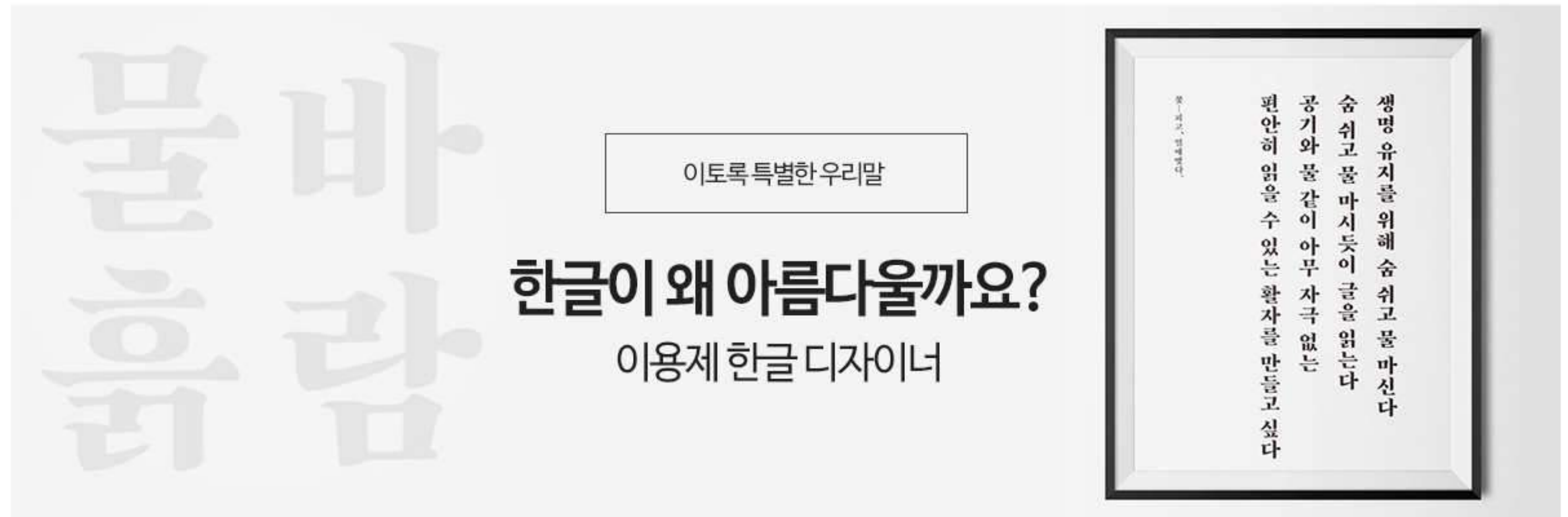
더 자세한 내용은 [‘국어문화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우리말, 그리고 사람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 ▶ 궁금한 우리말 ▶ 이토록 특별한 우리말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휴대 전화 화면, 책, 영상 자막 등에서 수많은 글자꼴을 접한다. 하지만 그 글자꼴들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용제 디자이너는 20년 넘게 묵묵히 ‘바람체’, 세로쓰기용 ‘꽃길체’, 환경을 보호하는 ‘잉크를 아끼는 글자’, 아모레퍼시픽 전용 ‘아리따’ 등 여러 글자꼴을 만들었다.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그를 만나러 가는 길,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한글의 조형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였다. 내심 한글은 이런저런 이유로 아름답다는 말을 들려주겠지 기대했다. 한글 디자이너이니 보통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친 한글의 미적인 우수성을 일깨워 줄 것이라고…….

“별, 꽃, 사랑 같은 단어는 유독 예쁘게 그려져요. 단어에 ‘ㄹ, ㅂ, ㅅ’ 등이 포함되면 이 자음들 때문에 자연스레 공간 배분이 돼서 맵시가 살아나거든요. 반면 ‘헐’ 같은 글자는 공간 배분도 어렵고 균형을 맞추기도 까다롭죠.”

뜻도 사랑스럽고 듣기에도 좋은 말이 썼을 때도 예쁘다니, 어쩔 당연한가 싶으면서도 한글 디자이너의 입을 통해 들으니 신선하다. 그런데 한글의 조형미에 대해 물어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온다.

“한글 생김은 좀 건조해요. 좋게 말하면 담담하고요. 한글은 24개의 수직선·수평선·사선·정원 단순한 형태의 자모음을 모아쓰기 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글자를 쓰면서 발생하는 약간의 휨(곡선)과 강약이 글자꼴에 나타날 뿐이라서 좀 심심한 형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글은 현대가 간결해서, 디자인할 때 글자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과장되게 꾸미면 글자를 읽을 수가 없게 되죠. 표현을 절제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만일 세로쓰기를 계속했다면 글자꼴이 더 유려하게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세로쓰기도 하지 않아서, 디자이너로서 할 수 있는 시도가 많지 않지요.”

이용제 디자이너는 디자인 재료로써 라틴 알파벳은 깔끔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 쉽고, 한자는 화려한 멋을 만들어 내기 쉽다고 한다. 반면 한글에는 담백한 멋이 있단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한글의 겉모습보다 그 속에 담긴 의미다.

“우주의 원리를 반영해서 창제한 훈민정음은 대단히 지적인 문자라고 생각해요.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름답나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서 쉽게 쓰고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잖아요. 탄생 배경부터 남다른 한글에는 숭고한 아름다움이 서려 있습니다. 단순히 글자꼴이 예쁜가, 아닌가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세종의 마음에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인정’과 ‘배려’다. 한글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한 10여 년 전부터 늘 되새기는 말이기도 하다. 세종만큼 뛰어난 업적을 남기기는 어려울지라도, 인정과 배려하는 마음만큼은 닮고 싶다.



우리나라와 우리 말글 역사 공부가 나의 힘

그는 한글 디자인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히움’의 대표이자 계원 예술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글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도 하다. 자연스레 한글 디자인의 미래를 깊이 고민하게 됐다. 자신의 저서 『활자 흔적』에서 앞으로 100년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아직 한글 디자인 교육의 체계가 부족해요. 용어 정의부터 이론, 디자인 교육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활자 흔적』이나 『한글+한글디자인+디자인』 등의 책을 쓰고 한글 디자인 잡지 『히움』, 『모임꼴』도 만들고 있죠. 아직도 정리해야 할 내용들이 많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씩 해 나가고 싶습니다.”

한글 디자이너로서 국어 공부는 필연적인 일이다. 그는 국립국어원의 누리집에서 맞춤법이나 문장부호와 관련된 규정들을 확인하고 순우리말을 찾아보기도 한다. 도움이 될 때도 많지만, 원하는 정보가 없어 아쉬울 때도 있다.



▲그가 만든 한글 디자인 책과 잡지가 히움 내 '활자공간'에 전시되어 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지금보다 더 풍부한 순우리말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어의 순우리말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쓰였는지 이런저런 우리말 관련 의문들이 생길 때 명확한 기준이 되는 답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용제 디자이너는 우리 말글 공부에 한글 디자이너에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좋은 한글 디자이너가 되려면 우리나라와 우리 말글의 역사 공부가 필수라고 말한다. 발상의 바탕이 되는 생각 주머니가 빈약하면 좋은 글자꼴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가 설립한 ‘활자공간’에는 손때 묻은 국어 관련 책들과 역사책들이 가득하다. 『우리글 바로쓰기』, 『없어져 가는 우리말 모음 사전』, 『국어음운론』, 『띄어쓰기 편람』, 『국어순화용어 자료집』 등 국어 전공자들이 읽을 법한 책들을 곁에 두고 자주 들춰 보며 제자들에게도 필독서로 권한다.

“한 글자꼴이 인기를 끌면 얼마 안 돼서 그와 비슷한 글자꼴이 베끼듯이 쏟아져 나오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빨리 만들어 팔기에 급급하죠. 글자꼴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100년, 5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쓰던 한글은 물론 한자도 찬찬히 살펴보고, 사회적 흐름 안에서 한글을 바라봐야 발상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시대 변화에 따라 글자꼴도 달라지니까요. 깊은 고민 없이 유행하는 글자꼴을 따라 그리기만 한다면 글자꼴의 품질이 떨어지고, 생명력도 짧아지기 마련입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한글 그리고 글자꼴

그가 이렇게 강조하는 데에는 한글 폰트 시장이 지금보다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다. 만드는 사람부터 깊은 연구를 통해 좋은 폰트를 내놓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한글 디자이너들이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리망(인터넷) 검색창에 한글 폰트를 치면 가장 많은 연관검색어는 ‘무료 한글 폰트’, ‘폰트 무료 다운’ 등이다. 작가가 쓴 책, 예술가가 그린 그림, 그리고 가수가 만든 노래 등에는 돈을 지불하면서 아직까지 한글 폰트는 돈을 내고 써야 한다는 인식이 희미한 편이다.

디자이너가 폰트 하나를 만들려면 한글만 최소 2,350자, 많게는 11,172자를 컴퓨터로 그려야 한다. 한글 외에 문장부호, 라틴 글자 등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3,500자 정도를 그린다. 숙련된 디자이너도 빠르면 4~5개월, 공들이면 1년 넘게 걸린다. 다 그리고 나면 글자꼴 전체의 균형을 검토하고 매만지는 과정이 기다린다. 매일 일상에서 많은 글자꼴을 보고 쓰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른다. 제대로 된 글자꼴을 개발하기까지 이토록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다.

그는 안타까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개선하고자 행동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3년 ‘텀블벅’ 누리집에서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를 받아 ‘바람체’를 만들었다.

불바바
어람람
|을이

▲대중투자로 탄생한 ‘바람체’

처음 시작할 때 스스로는 물론 주변에서도 “그게 되겠냐?”면서 반신반의했지만, 80일간 2,386만 원을 모았다. 후원자는 412명, 목표 금액의 119%를 달성했다. 여러 사람들의 바람이 모여 탄생한 ‘바람체’는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다. 대중들에게는 아이유의 〈꽃-갈피〉음반 표지 글자꼴로 친숙하다.



▲아이유 <꽃-갈피> 음반의 제목에 쓰인 ‘바람체’
(사진: 페이브 엔터테인먼트)



▲ ‘바람체’를 제목에 사용한 책(사진: 도서출판 등녘)

“개발 비용을 모으려는 것보다 한글 디자이너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텀블벅’에 매일 일기 쓰듯 작업 과정을 써서 올렸어요. 글자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각 단계마다 어떤 고민을 하는지, 한글 디자이너가 겪는 생계 문제 등을 소상히 공개했죠. 알고 보니 제가 1년 동안 가장 많은 글을 올린 사람 중 하나였대요. (웃음)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힘을 많이 얻어서인지, ‘바람체’에 더 큰 애정이 생겨서 ‘바람체’에서 획 굵기를 달리한 글자 가족을 만들고 있어요.”



▲ 자신이 만든 '꽃길체' 앞에서 웃고 있는 이용제 디자이너

폰트 하나를 만드는 데 1년이 걸리고, 사람들은 무료 폰트에 익숙한 환경에서 일하니 결코 녹록지 않은 직업이지만, 그동안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이 길로 들어서길 잘했다 싶은 점도 있다.

“30대 초반에 디자인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디자인은 공공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 스스로 내린 결론이었어요. 저의 디자인 철학이자 삶의 방향이 됐죠. 한글은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대표적인 공공재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글 디자인은 제 가치관과 잘 맞아떨어지는 일이에요. 생각과 삶을 맞추며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려고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의 마음을 본받아, 좋은 한글 글자꼴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잘 쓸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이용제 디자이너. 한글의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그가 만들어낼 다음 글자꼴이 몹시 기대된다.

글: 정성민
사진: 김영길

놀라운 우리말

우리말을 여행하다

찰나의 우리말



찰나의 우리말

표준어의 장단 ②: 장단의 전통성은 신화인가, 역사인가?

🏠 ▶ 놀라운 우리말 ▶ 찰나의 우리말

2013년 8월 19일 월요일 아침이었다. 그날도 시작은 매우 평범했다. 늘 그렇듯이 연구실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고 전자 우편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주말 동안 수신된 수십 통의 편지가 우편함에 담겨 확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씩 확인하고 답장을 써 가다가 일요일 오후에 배달된, 너무나도 흥미로운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되었다. 놀랍고 신기해서 소름이 돋았다.

편지를 보낸 분은 일본 나고야 대학의 우츠기 아키라 교수였다. 우츠기 교수의 편지에는 그해 봄 한국을 방문해서 필자의 연구실을 찾았을 때 필자가 혹시나 찾으려 하면 보내 달라고 부탁했던 바로 그 자료가 담겨 있었다. 우츠기 교수의 도움을 받는다면 필자가 원하는 자료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며 부탁했던 터였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필자가 원하는 자료가 담긴 편지가 배달된 것이다.



필자가 우치기 교수에게 부탁한 것은 일제 강점기의 자료였다. 우치기 교수와 만났을 때 필자는 우치기 교수에게 혹시 일제 강점기에 출간된 자료를 읽다가 한국인들에게 일본어의 장단을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우치기 교수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필자는 혹시 관련 자료를 보게 되면 바로 알려 달라고 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리라 생각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필자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우게 된 가설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그 가설은, 한국어 장단의 전통성은 역사가 아니라 신화이며, 그러한 신화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일제 강점기의 일본어 장단 교육이 자리 잡고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설을 세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장단의 구분을 통해 단어의 뜻이 서로 구분되는 고유어 명사의 수가 너무 적다는 점 때문이었다. 표준어 해설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장단이 오랫동안 한국어에서 ‘단어의 의미 변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면 고유어 명사 중에서 장단에 의해서만 서로 구분되는 단어의 쌍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유어 명사 중에서 장단에 의해 구분되는 단어의 쌍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표제어 5만 개 정도의 중사전을 대상으로 확인해 보았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전 표제어 중에서 고유어 명사의 목록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목록에서 동음이의어, 즉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의 쌍을 모두 나열한다. 나열한 동음이의어 쌍을 대상으로, 장단에 의해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단어 쌍이 존재하는지 확인한 후 목록을 추려 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 추려진 단어의 쌍은 총 34쌍에 불과했다.

그나마 34쌍 중에서도 11쌍은, 원래 2음절 단어였던 것이 1음절로 줄어든 경우이거나 단음인 쪽이 의존 명사인 경우였다. 전자의 예로는 ‘다음’의 준말인 장음 [담:]과 담장을 의미하는 단음 [담]의 대립이다.

또, 후자의 예로는 장음인 먹는 [김:]과 모락모락 나는 [김:]과 단음인 의존 명사 [김]의 대립이다. 전자는 장음이 고유한 것이라기보다는 음절의 축약으로 인해 생긴 보상적 장음화의 결과라는 점에서, 후자는 의존 명사의 특성상 말의 시작에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단어의 시작에서 보이는 장음과 단음의 대립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한 장단의 대립쌍으로 보기 어렵다.

총 34쌍 중에서 이들 11쌍을 제외하면 23쌍이 남는다. 그런데 이 23쌍 중에서 3쌍은 장단 대립의 쌍으로 시작하는 복합 명사, 즉 [눈]과 [눈:]의 대립이 복합 명사 [눈길]과 [눈:길], [눈물]과 [눈:물], [눈싸움]과 [눈:싸움]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였다. 이렇게 또 복합 명사 3쌍을 제외한다면 고유어 명사 중에서 장단의 대립만으로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진정한 장단 대립의 단어의 쌍은 모두 20쌍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장단이 단어의 의미 변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표준 발음법 해설의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반면에 일본어는 모음의 장단이 단어의 뜻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언어다. 모음을 길게 발음하는가, 짧게 발음하는가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첫음절의 모음이 짧은 ‘ゆき [유키]’는 ‘눈(雪)’을, 첫 음절의 모음이 긴 ‘ゆうき [유:키]’는 ‘용기’를 의미한다. 또, 둘째 음절이 짧은 ‘おばさん [오바산]’은 ‘아주머니’를, 둘째 음절이 긴 ‘おばあさん [오바:산]’은 ‘할머니’를 의미한다. 이렇게 일본어는 모음이 장음이나 단음이나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장단의 대립을 보인다.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 사람들은 일본어를 ‘국어’로 배우며 학교를 다녔야 했다. 학생들의 모국어(母國語)가 일반적으로 한국어였던 만큼, 한국어에 장단이 없었다면 일본어의 장단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일제 강점기의 일본어 교육과 관련된 자료에서 한국인에게 일본어의 장단을 가르치기가 어렵다거나, 한국인들이 일본어의 장단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기술을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우치기 교수에게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 보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필자가 세운 그 가설을 정확히 뒷받침해 주는 자료를 우치기 교수가 찾아서 보내 준 것이다. 그 자료는 1942년 조선총독부가 엮은 1학년 읽기 교과서 상권의 교사용 해설서였다.

우치기 교수는 이 교사용 해설서의 226쪽부터 260쪽 사이에 있는 ‘國語音聲學概要(국어음성학개요)’라는 제목이 달린 장 전체를 스캔하여 보내면서 특히 248쪽에 있는 ‘장모음’ 부분을 번역하여 보내 주었다. 여기서 ‘국어’란 물론 ‘일본어’를 의미한다.

なほ、地方によつて、ウの中母音的のもので發音されることがある。(朝鮮地方など) どちらにしても國語のオはオで代用できるが、エでは代用できない。以下純粹の母音でないが、ここで説明を加へておく。

ア オ ユー ア オ ユに輕いイが來た重母音で國語のヤ ヨ ユと考へて差支へない。

エー エの前に輕いイがついたもの。國語にはない。

ワ ヱの前に輕いウが加つたもので國語のワにはない。

例一 現在の國語にないが昔の、こゝはこの音であつたらうと思はれる。

例二 國語にないがワ行の子音に母音エウがついたものと考へればよい。

長母音 朝鮮語の母音には原則として長短の區別がない。(併しごく特殊の場合に長母音が存在する) それで譯文には長母音を示す記號がないがこの頃國語の「ー」をそのまま使用してゐる。

それで朝鮮人の兒童は母音の長短を誤ることが多いから十分注意する必要がある。

(四) 子音の比較

朝鮮語の個々の子音を國語の子音と比較する前に兩者の間にはつきりとした相違があるので、その相違について研究してから個々の音にはいることにする。

一般に破裂音又は摩擦音に於いてみることであるが例へばバの子音についてその發

◀[그림 1] 1942년 조선총독부 편 1학년 읽기 교과서 교사용 해설서 248쪽

〈번역: 나고야대학 우치기 아키라 교수〉

장모음: 조선어(한국어) 모음에는 원칙적으로 장단 구별이 없다(단, 특수한 경우에 장모음이 존재한다).

그래서 언문(諺文, 한글)에는 장단을 나타내는 기호가 없으니 요새 국어(일본어)의 ‘-’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인 아동들은 모음 장단을 틀리는 경우가 많기에 충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즉, 오랜 기간 지켜져 왔고, 의미 변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 한국어를 관찰한 일본인 연구자들이 한국어에 장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는 데다가, 실제로 고유어의 명사가 장단으로만 구분되는 쌍을 살펴보면 많이 잡아도 34쌍, 적게 잡으면 20쌍에 불과하다. 조선총독부가 펴낸 교사용 해설서의 관찰이 맞다면,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어에서 장단의 대립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장단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유지되어 왔다고 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 장단이 의미 변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해야 한다는 장단의 전통성은 근거를 갖춘 ‘역사’가 아니라 근거가 희박한 ‘신화’일 수 있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 장단은 한국어에서 의미 변별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15세기 존재했던 성조가 없어지면서 상성이 지녔던 잉여적 요소로서의 장음이 해당 어휘에 남아있던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존재했으나 그 존재가 크게 의식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한국어의 장단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어를 ‘국어’로 교육받는 과정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장단에 대한 민감도를 갖추게 되었고, 이러한 장단 민감도는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잉여적인 요소로서 존재하던 한국어의 장단에까지 전이되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장단의 전통성은 신화가 되었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교육을 통해 학습된 장단의 구분 능력은 이제 더 이상 우월적 지위로서 작용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장단의 ‘전통성’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표준 발음법의 장단과 관련된 조항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표준 발음법이라는 성문화된 규정을 통해 발음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사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단어의 발음이 궁금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발음 사전이지, 표준 발음 규정이 아니다.

글: 신지영(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쉬어가는 우리말

방언 한 끼

우리말의 재구성



우리말의 재구성

담음새

🏠 ▶ 쉬어가는 우리말 ▶ 우리말의 재구성



어떤 접시가 **담음새**를
돋보이게 해줄까?

음식이 정말 맛있구네!

담음새까지 정갈하게 하느라
수고가 많았겠다.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은 법이죠!
정성스러운 **담음새**로
한 끼 식사가 더 특별해질 수도 있습니다.



담 음 새 는

‘플레이팅’을 다듬은 말로,
음식을 내기 직전에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그릇이나 접시 위에 담고 장식을 더하는 것을 뜻합니다.



음식을 돋보이게 하려면
음식을 잘 담아야 하듯
우리의 생각도
반듯한 말 그릇에 담아 봅시다.

